

“영호남 교통망, 우선 순위 정해 추진해야”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 광역 교통망 조기 완공 요구 정부 SOC 예산 감축에 부담

광주와 전남·북, 영남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는 광역 철도·도로망 건설은 영호남 화합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확충되면 자유로운 왕래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양 지역의 경제 발전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달빛내륙철도 건설에만 5조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 예산을 제 때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현안 SOC 사업을 각자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영호남 발전을 위해 시급한 SOC를 우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호남 교류, 지도를 바꾼다=지난 31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한 영호남 교통망 확충은 크게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으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 영호남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SOC 사업이다.

영·호남 광역철도망은 ▲목포~부산 남해안철도 전철화(3조7416억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5조원 이상)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5조7700억원) ▲목포~새만금 서해철도 건설(2조3056억원) ▲전주~김천 복선전철 건설(3조2970억원) ▲김천~거제 KTX(남부내륙철도·5조3246억원) 조기 착수 등 6건이다.



지난 31일 오후 부산시 해운대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14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광주시 제공>

또 영·호남 광역도로망 건설은 ▲동서3축(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2조8882억원) ▲동서통합대교(남도2대교·430억원) 건설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건설(5040억원) 등 3건이다.

그동안 영호남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는 대부분 건립되지 오래됐고, 완전 전철화가 되지 않아 양 지역의 동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전북,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 8개 광역 시·도가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확충

과 조기 완공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성 큰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야=하지만 이들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정부는 올 SOC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등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지양하고 있다.

또 일부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낮아 추진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수시 삼암동과 경남 남해군 서면 서상리를 잇는 여수~남해 동서해저터널 사업의 경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미흡(BC=0.24)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호남 화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부 지역에선 현안사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8개 광역 시·도가 의견을 모아 각기 다른 SOC 사업을 주장할 게 아니라 우선 순위를 정해 영호남 교류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먼저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수사 속도

김·경, 이용섭 부위원장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문자메시지 발신자 이름과 실제 발신자가 다른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경은 공무원 신분으로 신규 권리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1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이 부위원장 이름으로 보내진 문자메시지의 실제 발신자를 확인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신년 인사를 겸해 자신의 공직 업무성과를 설명하고 영상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민주당 광주시장 권리당원들에게 보냈다.

이 문자메시지는 이 부위원장 이름으로 보내졌지만, 발신자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경찰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실제 문자메시지 발신자 신원

을 파악하고 이 부위원장과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시장선거 출마 예정자인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민주당 광주시장에도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컴퓨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당원명부 유출 여부와 관리 실태도 살펴볼 방침이다.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광주지검도 이 사건을 선거 사법담당인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발신자를 확인하고 (주변을) 역추적하고 있다"면서 "고발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함께 선거법위반도 모두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대변인 광주시장 선거 출마

나경채(사진) 정의당 광주시장 대변인이 정의당 후보로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대변인은 지난 3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개혁의 중심이었던 광주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그 길을 가는데 정의당 후보로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는 민선 시장 선거가 실시된 이래 23년 동안 하나의 정당만이 시장을 배출했고, 하나의 정당만이 의회 다수를 구성했다"며 "광주는 단 한 번도 정치중심세력이 교체된 적이 없으며 고



인 물은 부패하기 마련이다"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은 당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에 속하는 정당이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의 중심 정치세력과 중심세대를 동시에 교체하자"고 강조했다.

광주 출신인 나 대변인은 전남고교와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 관악구의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노동당 대표, 정의당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나주 혁신산단에 호남 최대 축산물유통센터 신축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최첨단 위생설비를 갖춘 호남 최대 규모 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이전·신축된다.

전남도는 농업경제지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주 축산물공판장이 신축 이전 허가를 받았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나주 영산포에 위치한 축산물공판장은 1992년 5월 준공돼 농업경제지주에서 운영하는 전국 4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이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신축 등이 논의됐고, 지난 2016년 12월 전남도와 나주시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1년여 동안 부지 매입 및 설계작업이 진

행했다. 새롭게 들어설 종합유통센터는 7만 1139㎡ 부지에 668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1378㎡ 규모로 신축된다.

이 곳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축산 선진국인 덴마크의 최첨단 도축시설이 도입된다. 또한, 자연친화적 생축유도시스템, 약취방지시설을 갖추게 되고, 부지 경계에 10m 이상 차폐 녹지를 조성해 냄새와 소음, 오염 등을 최소화한다.

특히 생축차량 전용 진출입로를 개설해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할 수 있도

록 설계됐으며, 동물혈액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설비를 갖춘 예정이다.

전남도는 나주혁신 산단에 새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입주와 함께 육가공 공장 등 4개 축산물 가공업체가 입주하고 동종 업체 이전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산단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신축되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바른 먹거리 생산과 지역 축산물 소비 확대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재해보험 적극 안내

광주시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한파, 폭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보험상품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자치구 보험 담당자 성과회의를 매일 정례화하고, 자치구성과 인센티브를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연재해 상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대설, 지진,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을 통해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보험이다. 보험료는 국가·지자체가 일반가입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따라 53~92%까지 차등 지원한다. 피해 복구비는 유형에 따라 3500만원~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

윤난실 전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 민주당 입당

윤난실(사진) 전 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광주시의원 출신인 윤 전 센터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추구해온 생활정치를 통한 진보적 변화, 서민 중심 정치, 풀뿌리 자치의 가치를 지키고 가장 역동적인 정당인 민주당과 더불어 책임있게 현실을 변화시키는 정기로 나아가고자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또 "저는 지방과 노동, 여성을 상징하는 정치인이었다"며 "이제 강한 개혁정당, 촛불과 대선을 통해 가장 강한 책임정당이 된 민주당의 윤난실로서 당이 일



하는 사람 속에 뿌리 내려 더 단단해지고 여성의 삶을 대표해 더 품성해지도록 하는데 당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8 마지막 수배자'인 윤환봉 선생의 조카로도 유명한 윤 전 센터장은 1980년대 중반 군사교육반대로 무기정학을 당해 광주교육대학교를 자퇴한 뒤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이후 민주노동당 광주본부 기획국장을 거쳐 2002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광주시의원에 당선됐다. /오광록기자 kroh@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4호

마음으로 다가는 침단우리병원

“어깨 통증과 손저림! 목 디스크일까요? 아니면 어깨 문제일까요?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시다면 목디스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 매이저리, 기아 타이거즈 서재용 선수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치료는 침단우리병원!

세심한 검사와 정밀한 진단으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